



요약

사실

복음의 전파자인 마리아처럼.

양성 여정

오라토리오의 사명: 기쁨의 교육학.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1. 나자렛: 몸, 집, 성전.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2. 모든 피조물의 여왕.

가족의 연대기

- 아드마 프리마리아- 2023년 피정: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

- 브라질 - ADMA 브라질 관구위원회의.

- GMG 2023 -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라.

- 칠레, 라 세레나 - 도움이신 마리아회 창립 120주년.

- 2024 IX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화: 등록이 시작됩니다.

사실

복음의 전파자인 마리아처럼

P.1

사랑하는 ADMA 회원 여러분,

P.3

가톨릭 교회는 10월 한 달을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선교 정신을 일깨우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달에는 선교 활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P.4

교회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P.6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가 될 것을 권장하며, 세계 선교의 현황과 필요성,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립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을 알리고, 전 세계에 선교가 필요함을 모든 신자들이 이해하도록 하며, 신자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일깨우고 선교 성소를 촉진하며,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희생의 봉헌을 통해 영적 선교 협력을 증진시키고, 선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물질적 선교 협력을 증진하는 다섯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P.7

P.8

‘세계 선교의 날’로 선포된 10월의 네번째 일요일은 한 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날은 모든 지역 교회에서 보편적 연대의 축제로 기념됩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 날을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1922년 교황으로 선출된 해에, 성령강림 대축일 강론을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침묵 속에서 하얀 수단을 입고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추기경, 주교, 사제, 신자들에게,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선교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비오 11세는 PMS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1926년 4월 14 일에 세계 선교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P.9

P.10

P.10

몇 달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정, 즉 사도적 열정을 주제로 새로운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로 태어났으며,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 사도가 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사도적이며 선교적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닫히지 않고 ‘밖으로 나감’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예수님에 대한 전염성 있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그분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도적 열정이 줄어들고 미지근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화의 지평, 선포의 지평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병들고, 스스로를 닫으며, 위축됩니다. 사도적 열정이 없으면 신앙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산소와 같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정화시킵니다(일반 알현, 2023년 1월 11일).

이 복음화의 길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복음 선포’에서 마리아를 ‘복음화의 별’**로 선포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순절 아침에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감도로 복음화를 시작하는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어렵고 희망이 없는 오늘날에도 마리아께서는,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화를 촉진하고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음화의 별이 되어 주소서.”(교황 요한 바오로 6세, EN 82).

교황 바오로 6세는 가장 먼저 복음화 된 인간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온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마음을 열고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복음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었으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복음화의 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드님의 구원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고, 갈릴레아 가나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표징인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마리아의 사명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은총의 순서에 따른 우리의 어머니, 온 교회와 사목자, 신자들의 어머니,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장 충실히 따르는 첫 번째 제자이자 추종자이신 마리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되게 하라는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복음화의 별이신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우선 순위로 두며, 그분의 사랑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며, 기쁨과 열정, 믿음과 희망으로 삶을 마주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악과 죄에 맞서 두려움 없이 끈질기게 싸울 것을 권유합니다. 세상의 빛과 이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도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의 종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가난으로,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해지기 위해,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진리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며 용기 있게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굳건히 일하며,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모님의 달인 10월에 성모님처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 교회의 복음화의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거듭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오라토리오의 사명: 기쁨의 교육학

오라토리오 사명의 근본적인 특성은 기쁨과 축제의 교육학입니다. 이는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연중 수많은 종교 축일에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깊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돈 보스코는 일상적 의무의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음악, 연기, 체조에 대한 소년들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벤트, 연극, 축제를 만들어, 오라토리오의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항상 삶은, 기뻐할 일, 축하할 일, 축하할 만한 사람이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뜰’의 경험은 우정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확립되는 자발적인 환경의 특징입니다. 쾌활함과 축제의 교육학으로 이해되는 ‘안뜰’에서, 가치 제안과 신뢰하는 태도를 통해 진정성 있고 친밀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가 실현됩니다. 안뜰은 교육자-청소년의 관계가, 환경 및 역할에 따른 형식주의를 따르지 않고, 소년/청소년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데 적합한 장소이며, 귀속말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뜰’의 경험은 우리를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우리 사목자의 벽을 허물고, 젊은이들이 교육적이며 사목적인 제안이 풍부한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만들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안뜰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집니다. 살레시오 카리스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분리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 오신 하느님 아드님의 선택에 따라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잡습니다.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돈 보스코가 안뜰에서 오락과 전례 거행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대가가 된 까닭입니다. 돈 보스코는 『오라토리오의 회상』에서 소년들 사이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의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며, **“나는 학생들이 종교적인 거룩한 성사에 자주 참여하게 하기 위해 활기찬 오락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1884년 로마에서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그는, 오락에 대한 ‘나태함’과 성사에 임하는 ‘냉정함’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꿈속에서 그가 받은 사명은, 운동장과 성당, 놀이와 전례, 건강한 즐거움과 은총의 삶은 하나의 교육학으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이며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육적 구체화

소명과 사명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삶과 소명에 집중하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 않고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과일은 아직 덜 익은 채로 땅에 떨어지거나 가지에서 썩지 않고 잘 발달된 뿌리와 왕성한 줄기를 가진 건강한 식물일 때만 익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근본적인 증거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첫 번째 저자는 아با나 엄마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부르시는 분이시고, 미친 듯이 사랑하며, 모든 것을 알고, 선을 원하며, 선 자체이시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수 없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삶은 작고 큰 일들 속에서, 사랑의 의지와 동의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일이나 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응답이십니다. 참다운 위대함은 부르시는 그분께 대한 응답이며, 크거나 작음이 중요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분께 대한 충실이 중요합니다.

소명의 반대말은 야망입니다.

이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가정, 즉 삶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불만족에 집착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너무 적다고 여기는 억제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소는 사명-뽐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주권적 심의의 결과인 뽐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뽐힘을 받음은 아무 것도 아니며,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보스코의 경우처럼 가난하고 무지한 농민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뽐힘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며,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명-뽐힘은 자유롭게

받은 것을 나눌 것을 요구합니다. 삶을 선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뽐힘은 헌신을 증가시킵니다. 뽐힘은 책임을 증가시킵니다.

뽐힘의 반대는 변명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식과 변덕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모든 변덕을 만족시키는 것. 배신적이고 해로운 사람이 되는 확실한 방법. 패배자입니다.

야망과 가식으로서의 삶: 연약함과 추함. 소명과 사명으로서의 삶: 아름다움과 견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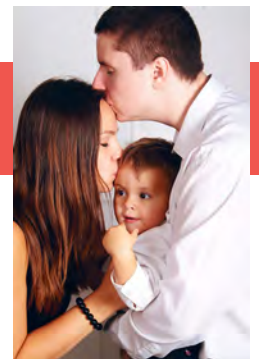
엔리코 스타시 신부 - SDB

¹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부,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 참조, SDB, 로마 2014, 131.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1. 나자렛: 몸, 집, 성전

“집”에 관한 일반적이지만 실질적인 고려 사항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 나자렛 집에서 이”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느님의 마음, 마리아의 몸, 성전 벽 사이에는 깊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세 가지 모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집’이라는 개념을 환영과 출발 지점,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 **출발하고 돌아갈**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자신과의 친교에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와 구분되시는** 하느님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태에 품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모든 어머니의 신비로, 우리는 모성애의 보살핌에 맡겨져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전의 신비는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 앞에 잠시 멈추어**, 일상의 활동을 중단하고 멈추어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변화되어, 그분께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참으로 “하느님의 집”, 말씀의 퀘가 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이었던 마리아의 신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어, 마리아 안에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의 친교

‘집’의 현실은 항상 사람과 사람의 친교와 분리라는 사랑의 근본적인 법칙을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애정과 존중, 적절한 친밀감과 적절한 거리, 애착과 분리 사이의 균형,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 자유를 증진하기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위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성숙하게 만들지 않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는 사랑의 과잉 상태입니다. 자유의 숨결이 사라지면 사랑은 더 이상 소속감이 아니라 소유가 되고, 애정의 유대가 사라지면 자유는 갈 길을 잃거나 힘을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랑의 성숙함은 **집에 머무르는 방법과 떠나는 방법** 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닫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고 자신을 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며, 수천 가지 두려움에 빠지거나 무의미한 경험을 늘리는 이중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제자들과 헤어짐으로써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모두를 위해 더 큰 사랑과 죽음을 이기는 삶을 깨달으셨습니다. 수난 전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봅시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 16,7). 이 말씀은 이별을 말하지만 상속을 말하기도 하고, 황폐한 시간을 말하지만 더 큰 위로의 관점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베들레헴의 기쁜 탄생부터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타의 고통스러운 탄생까지, 피앗에서 스타바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맞이하고 잃음으로써 분명하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가리타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일할 수밖에 없었던 돈 보스코 성인을 바라봅시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 안토니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스승이신 돈 칼로소의 도움마저 빼앗기지만, 그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확신으로 교육적 사랑의 지혜를 요약했으며, 청소년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럴 때 사랑의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은 보호와 교육, 사물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고, 목격하고,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생명을 받고, 삶을 배우고,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지, 장비를 쌓아 두고 자물쇠로 잠가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다

여기에 ‘가정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고, 삶을 배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과의 사랑의 대화에 대한 적어도 세 가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도달할 수 없는 정상이나 편안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의 하느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불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왜곡된 자아 이미지, 즉 하느님의 심판이 자비의 심판이 아닌 것처럼 또는 이미 완전하지 않고 선이 불가능한 것처럼 왜곡된 이미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두려움으로 인한 삶의 포기는 삶을 마비시키므로, 복음은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마태 7,21).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요한 3,21).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13,12)라는 말씀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하느님과의 대화의 질은 어떠한가? 나는 겸손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내 삶을 사랑의 일에 드러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모아, 가진 것을 다하여, 나를 버리고 헌신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2. 세대 간의 관계에서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것은 신뢰를 주고 책임질 줄 알게 하고, 지나친 강요와 보호의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우정 관계를 강화하며, 연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삶에 대한 소중한 열망과 사랑에 대한 어른들의 모범을 확신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과도한 기준과 보살핌을 위해 자녀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공동체적 관계에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고, 그 자비를 실천하고 나누는 성전에 대한 경험은, 친교와 선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헌신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 관한 아름다운 사목교서에서 이 점을 권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서한은 교회가 가장 친밀하면서도 공적인 모든 표현에서 선교적인 면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순회적 친밀함이며 친교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친교입니다... 사목적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 개혁은 이런 의미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더욱 선교적으로 만든다... 참여적 과정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교회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가가려는 선교적 꿈이 될 것이다’(EG 23. 27.31).

로베르토 카렐리 신부 -SDB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2. 모든 피조물의 여왕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241항에서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돌봄을 묘사한 뒤, **“완전히 변모하신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 영광스런 몸이 되신 성모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피조물이셨던 분이로서 그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1997년 7월 2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리 교육에서 마리아를 여왕으로 부르는 대중적 관습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이 관습은 에페소 공의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모든 피조물보다 높였지만, 이는 이미 매우 오래된 기도문 안에서 발견되며, 신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삶에서 마리아의 특별한 존엄성과 중재적 역할을 인정했으며, 이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몸과 영혼의 하늘 영광”에 대한 성모님의 승천을 기억했으며, 성모님을 여왕으로 지칭하며, “주님에 의해 우주의 여왕으로 높임받으셨으며, 이는 통치자들의 주님이신 그분의 아들(묵시록 19,16 참조)과 더욱 온전히 일치하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교회헌장 59)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회칙은 비오 12세의 회칙 「하늘의 여왕」을 언급하며, 마리아는 육화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신비롭게 참여하시는 새로운 에와인 마리아를 십자가 밑에서 언급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존엄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속하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이 승천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마르 16,19)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창조된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왕권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광스럽게 된 마리아의 면류관은 아들과 어머니라는 개별적인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직 그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창조의 모든 요소는 어떻게든 인간의 생명체 안에 담겨 있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은 인간의 60퍼센트를 구성하고, 땅은 인간이 먹고 살며, 미네랄의 형태로 남아 있고, 불, 즉 열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이며, 마지막으로 공기는,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이 하느님과 공유하는 숨, 즉 호흡입니다(창 1,7). 그러므로 아들과 어머니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는 피조물 전체의 기다림이 먼저 실현되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존엄은 결코 그녀의 모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모성, 돌봄에 대한 긴장감이 마리아를 깊이 있게 정의하고 특징짓는 요소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의 여왕으로서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 비오 12세는 이미 인용한 회칙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모성애를 지니시고 우리 구원의 이익을 생각하시며,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썼습니다. “주님에 의해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천사들의 합창단과 하늘의 모든 성인들보다 높으시며, 외아드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으신 성모님은 모성적 기도로, 구하시는 것을 매우 확실하게 얻으시며, 구하는 것은 반드시 찾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성모님의 사랑의 현존과 모성적 돌보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면, 이는 성모님께서 천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신 결과이며, 신자들은 이를 왕권과 왕관이라는 은유를 통해 표현해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과의 친밀한 친교는 마리아를 우주의 여왕으로 만들어 주며, 마리아가 모든 시대의 남녀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친교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신 마리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행복을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구원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성모님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바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여왕이십니다.”**(요한 바오로 2세).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하늘의 영광은 복음사가 루카가 마리아와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루카 1,39-56). 오리게네스(기원 후 3세기)가 남긴 고대 강론의 일부에 따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복되시니, 내 주님의 어머니, 당신은 내 여인이시니, 당신에게 왔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에서 ‘나의 여주인’으로의 전환은 몇 세기 후 마리아를 ‘주권자’라고 부르는 성 요한 다마센이 ‘**마리아는 창조주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선포할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존귀함이 영광을 받은 것보다 더 분명한 예언은, 복음사가 루카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한 마니피캇의 노랫말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이 노래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 즉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에 대한 엄숙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몇 구절 뒤에는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다”고 말하며 하느님께서 하시는 행동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겸손한 종”으로서 높여지도록 방향지어진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태중의 아기의 죽음으로 악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티첼리는 마돈나 델

마니피캇(Madonna del Magnificat)이라는 제목의 화려한 톰도에서 두 가지 신비를 겹쳐 독특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마리아는 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 마니피캇을 적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그의 무릎에 얹은 아이의 손에 의해 인도되고, 다른 두 천사는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마니피캇에서 마리아가 노래한 하느님의 행위 방식도 창조의 중심인 그분의 법칙으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기의 인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에 만연한 강자의 법칙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의 법칙, 삶과 죽음의 변화의 법칙, 계속되는 운명의 역전. 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을 갖고 있으며, 미래의 부활에 대한 약속조차도 이 운명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마니피캇의 논리에 따라 사물과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교회의 선익을 위해 하느님의 참된 협력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난을 인식하고 강자와 비천한 자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이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에게 “**생태적 회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리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순간입니다.

린다 포케르 수녀- FMA

가족의 연대기

아드마 프리마리아- 2023년 피정: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피정은 알레한드로 게바라 로드리게스 신부, 로베르토 카렐리 신부, 엔리코 스타시 신부, 피에르루이지 카메로니 신부, 루크레치아 우리베 수녀, 마릴레나 발셋 수녀가 함께하며 5교대로 나누어 약 500명이 참여한 가족을 위한 여름 피정이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젊은이, 성인들이 성소의 상호보완성 안에서 함께 모여 우정을 쌓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에 오랜 시간을 바치고, 그들의 삶에서 “질서”를 이루며, 배우자 사이의 유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성체조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며” 묵주기도를 통해 마리아께 의탁하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는 이날 주제는 돈 보스코 가족의 평신도 차원에 관한 총장의 스트레나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특히 교회의 진주인 “디오네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Strenna에서 말하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세계의 시민이 되라는 돈 보스코의 초대에 따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밀가루 반죽 속의 누룩”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심화하고 다시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돈 보스코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다시 함께 새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피정이 끝나고 남긴 몇 가지 소감문입니다.

프라차본은 은혜로운 은총의 장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와 예상치 못하게, 받게 되는 숨겨진 수천 가지 은혜들. 그곳은 자비의 장소이며 자비의 문,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는 문이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몇 년 만에 프라차본에서 피정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은총이며 큰 선물이었습니다. 프라차본은, 나 자신과 부부, 가족을 예수님과 마리아의 손에 맡기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며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피정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물을 찾는 오아시스이며,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저이기를 어제보다 더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당신이 보물을 숨겨 놓은 질그릇임을 알기에, 어제보다 더 겸손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어제보다 더 자유롭게 되어, 보이지 않는 것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변모의 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당신의 강한 빛으로 계속 비춰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룩한 변모의 날, 예수님 앞에 있던 세 사도처럼, 예수님 당신과 함께 머물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은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게 되고 평온함을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는, “빛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세 가지 행동을 일상의 삶의 골짜기로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머무십시오. 나도 여러분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부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관계를 제자리에 두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곁에 있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 ADMA 브라질 관구위원회의

브라질상파울로-2023년 7월-성요한보스코가직접설립한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상파울로의 “UNISAL Pio XI” 센터에서 브라질 아드마 제5차 관구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나우스의 살레시오 회원인 브라질 ADMA. 국가 담당 영적활성자 Sérgio Lúcio Costa 신부가 조직한 이 회의에는 관구위원들과 영적활성자들 19명이 참석했습니다. San Paulo, Porto Alegre, Belo Horizonte, Campo Grande 및 Manaus 와 AD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살레시오 회원들과 협력하고 있는 상파울루, 레시페, 미나스 제라이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세 수녀님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살레시오 영성을 되살리고,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공동 실행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살레시오 가족으로서의 ADMA를 이해하고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적 영성을 되살리도록 하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SDB, 브라질 상파울루 관구장이며 브라질 관구회의 (CISBRASIL) 대표인 후스토 피치니니(Don Justo Piccinini) 신부는 회의의 개최 미사를 주례하였으며, 돈 보스코가 사랑하는 마리아 사도직이 계속되도록

모든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ADMA의 세계 영적활성자 Don Alejandro Guevara신부와 FMA의 세계 대표인 Lucrecia Uribe 수녀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회의는 형제애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2024년 8월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열리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 대회에 브라질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GMG 2023 -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라

ADMA 젊은이들이 세계 교회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여름 그들은 XXXVII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리스본의 캄포 다 그라사에서 ‘그분을 만나십시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체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보이 땅으로 돌아온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9일 동안 겪은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만남들이 낳은 사진, 영상, 메시지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그 체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리아를 삶의 모범으로 삼고 그녀처럼 낯선 땅에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백만 이십 명의 형제 자매를 향해 “**일어나 서둘러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교황의 “젊은이여, 일어나라!”는 모든 것이 꽃피우고 생명을 연습니다. 결국 함께 춤추고, 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노래하고, 잠자고, (무엇이든 있다면) 먹고, 당신의 등에 “ADMA가 여기 있나요”를 읽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접근하는 브라질 자매와 팔찌와 메달을 교환하는 것, 그 표현, 즉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부활하다”, “**생명으로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24명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2명의 소녀와 12명의 소년, 세계 ADMA 영적활성자인 Alejandro신부를



포함한 두 명의 지도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룹에 처음 들어왔으며, 모두가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각자 마음의 목적지가 있었고,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었으며, 참여하고 스스로를 허용하라는 동일한 부르심을 인식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떠나십시오. “서둘러”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배낭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둘러” 우리는 리스본의 거리를 건너 교황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과 성야 기도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서둘러” 우리는 리스본과 그곳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에 빠졌고, 참된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연결은 만남, 나눔, 사랑, 봉사에서 나오는 연결입니다.

우리 마음 속의 리스본은 이제 다시는 이전의 리스본이 아니며, 오히려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사랑을 재발견하기 위해 “일어나 서둘러 가라”는 끊임없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전형적인 모습인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고, 내가 경험한 엄청난 은총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의 서두르는 모습을 본받아야 함을 끊임없이 기억시켜 줄 것입니다.

칠레, 라 세레나 - 도움이신 마리아회 창립 120주년

칠레 - 2023년 7월 - 라 세레나의 도움이신 마리아 지회 (ADMA)는 창립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1903년 칠레에서 설립된 최초의 설립된 지회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축하 행사는 성모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는 ADMA의 각 구성원을 그녀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해온 원장 Miguel Rojas 신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Andrés Morales 신부는 공동체의 가시성에 중요성을 두어, 교육 사목 공동체의 활동에 ADMA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해주신 데 대한 감사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ADMA는 또한 신자들 도움이신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받아 사랑스럽고 현명한 지도로 지회의 여정을 동반해주시는 매우 소중한 Manuel Fajardo 신부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La Serena의 ADMA에 대한 이 중요한



이정은 지역사회에서 누룩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새로운 헌신의 의미로 지회원들을 통해 살레시오 가족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